

최신 건축기술 한눈에 ... 우리집도 바꿔볼까?

주택·건설·건축박람회 25일 개막

강원건설단체연합회와 강원일보사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도와 춘천시 등 18개 시·군이 후원하는 '강원에코홈페어 2015-주택·건설·건축박람회'가 1주일여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박람회는 오는 25일부터 28일까지 나흘간 춘천 호반체육관에서 도내 주택·건설·건축 관련 업체들이 참가한 가운데 열려 1만여명의 관람객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도를 비롯해 18개 시·군 관련 부서 공무원들이 박람회장을 찾아 도내에서 생산되는 제품과 신공법·신기술이 설치된 부스를 둘러보고 자차단체에 적용할 대상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지하해 춘천 호반체육관에서 열린 '강원에코홈페어 2014-주택·건설·건축박람회'를 찾아 전시품을 둘러보는 관람객들. 강원일보

■25일 개막... 홍보 효과 최고=강원에코홈페어 2015는 25일 춘천 호반체육관에서 문을 연다. 개막식은 오후 2시 호반체육관 특설행사장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번 박람회에서는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친환경적인 주택환경을 조성하고 도내 주택·건설업체에서 생산하는 주택 소품 및 인테리어에 대한 정보 제공이 이뤄진다.

강원에코홈페어는 도내 유일의 주택·건설·건축박람회로 녹색성장의 중심, 강원도의 녹색건설 및 건축자재 소개의 장으로 평가받고 있다. 출품 대상 품목은 △건축자재(바닥재·내장재·지붕재·외장재·구조재·도장재·방수·단열재·방음) △가구 및 인테리어(인테리어 가구·생활가구·사무용 가구·전

인테리어 소품부터 건축자재까지 ... 지역업체 신제품·신공법 소개 올해 관람객 1만여명 방문 예상 ... 상담·거래실적 수십억 창출 기대

통가구·DIY가구·사물함·가구 하드웨어·벽난로·침장류·블라인드·스크린·인테리어 소품) △전원주택 및 주택정보 분야(목조주택·스틸하우스·펜션·모텔하우스·실외 리모델링) △생활가전 및 디지털 홈 분야(가전·도어록·홈시큐리티·홈네트워크시스템) △조정 및 공공시설 분야(실내 조정·잔디·펜스·정자·놀이시설·수목보호대·옹벽) △육식 및 주방 분야(위생도기·육조·샤워기·샤워부스·육식가구·스토브·사우나부스·시스템부엌가구) 등이다. 지난해에는 상담만 총 3,000여 건에

달했으며 현장에서 이뤄진 거래는 1억원으로 집계됐다. 또 상담실적까지 포함하면 수십억원의 성과가 있었던 것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지역 제품도 수도권 제품만큼 우수하고 기술력도 갖춰있음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지자체·업체·주민 소통의 장=이번 박람회는 도내 홈 인테리어 관련 우수제품을 한곳에서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종합전시회로 현장에서 계약까지 이뤄지는 원스톱 시스템을 도입, 최고의 홍보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각 업체 간 교류와 업무협의, 판매, 계약 등이 동시에

이뤄질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 짜여 건설·건축인들에게 홍보 기회를 제공하고 판로난을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일반 가정에서 관심을 갖는 인테리어 관련 자재 및 공예품 전시 등 다채로운 행사를 통해 지역 주민과 함께 호흡도 가능하다. 박람회 사무국은 현재 참가를 희망하는 업체들의 막바지 신청이 이어지는 가운데 수일 내로 참가업체를 최종 확정할 후 곧바로 부스 제작에 들어간다. 강원에도코홈페어 2015에 참가를 희망하는 기업체는 홈페이지(<http://www.ecohomefair.kr>)에서 출품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 팩스((02)6499-1650)로 제출해야 한다. 문의는 박람회 사무국(070-7098-8388)으로 하면 된다. 하위윤기자

이번 주 182억원 규모 시설공사 발주

도계~신기~미로 도로건설·춘천 농기계 보관창고 신축 포함

이번 주 도내에서 총 182억원 규모 시설공사가 발주된다.

조달청의 '시설공사 주간입찰동향'에 따르면 도내 시설공사 발주내역은 총 5건 182억원으로 집계됐다.

우선 원주지방국도관리청은 도계~신기~미로 간 도로건설 관련 총 4건의 공사를 발주할 예정이다.

신기~미로 간 도로건설 전기공사가 97억3,400만원으로 예산규모가 가장 크며 도계~신기 도로건설 전기공사

(59억9,500만원), 도계~신기 소방공사(13억800만원), 신기~미로 통신공사(7억4,500만원) 등도 입찰이 이뤄진다. 춘천시농업기술센터도 4억5,400만

원 규모의 '남부농기계임대사업소 농기계 보관창고 신축공사'를 발주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올해 현재까지 도내에서 발주된 시설공사는 총 192건 5,480억원으로 조사됐다.

하위윤기자 faw4939@kwnews.co.kr

“도내 우수건축물 한곳에서 만나요”

오늘부터 강원건축문화제

도건축사회(회장:최성두·사진)가 개최하는 '2015년 강원건축문화제'가 16일부터 19일까지 나흘간 KBS춘천방송총국에서 열린다.

올해는 강원건축문화상, 건축포럼, 공모전, 작품전, 어린이 집 그리기 대회, 건축모형만들기 체험 등 다채로운 부대행사가 마련됐다.

지난달 23일 마감한 '2015 강원건축문화상'의 대상에는 허민구(주)형제계가 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의 화천산악초마을이 선정됐다. 또



최우수상 2개, 우수상 4개, 장려상 5개 등의 작품이 각각 이름을 올렸다.

도건축사회는 이번 문화제를 통해 우수건축물 등 홍보를 통한 건축문화 위상 제고와 함께 건축에 대한 일반인의 관심 유도에 따른 건축경기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최성두 회장은 “강원건축문화제를 통해 민·관·학계의 건축 전문가들이 서로 협력, 도내 건축문화 발전에 힘을 모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하위윤기자

강원 친환경 녹색산업 가치 높였다



결산 - 성과와 의미

미국과 중국은 일찌감치 기후변화에 따라 녹색성장 사업을 국가 여젠다로 삼고 있다. 정부와 각 지자체도 기후변화에 맞춰 친환경 산업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이 때문에 친환경 녹색산업 박람회인 강원그린박람회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지난 12일부터 14일까지 춘천 호반체육관에서 열린 2015 강원그린박람회의 성과와 의미를 짚어봤다.

■ 역대 최대 규모

올해 강원그린박람회는 역대 최대 규모로 치러졌다.

도내 52개 기업이 참가했으며 이들 기업들이 녹색산업, 면세점, 그린라이프, 청정에너지, 환경기업, 청정식품 등 6개 존, 54개 부스에서 기업을 홍보하고 제품들을 전시, 판매했다.

올해 박람회는 3회째를 맞으면서 규모와 내실에서 자리를 잡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강원도 친환경 녹색산업 가치 제고·참가 기업 홍보 판로 확대·다양한 공연 마련에 따른 볼거리 제공·공공구매와 창업지원 연계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 친환경 녹색기업 육성 계기

역대 최대 52개 기업 참여
기업 홍보·판매 실적 제고
포럼·세미나로 정보 교류
지역업체 지원 강화 필요

올해 박람회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을 환경올림픽을 치르겠다는 강원도의 올림픽 정신과도 일치한다.

이 때문에 도는 강원그린박람회를 계기로 도내 친환경 녹색기업들을 발굴, 강원도 전략 산업으로 육성해 나갈 방침이다.

박람회 참가 업체들도 만족감을 표시했다. 강원그린박람회 조직위원회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참가기업들의 80%가 내년에 다시 참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재참가 의사가 높다는 것은 올해 그린박람회를 통해 기업 홍보는 물론 제품에 대해 상당한 금액의 판매 실적을 올렸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 정보 제공의 장

올해 박람회에서는 포럼과 세미나 등을 통해 참가 업체와 관람객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학술적인 면에서도 합격점을 받았다.

박람회 기간 중에 강원도가 주최하고 18개 시군 담당 공무원들이 참여한 '시군 공공구매 담당자 워크숍'을 비롯해 강원대 창업지원단의 '강원창업포럼', 한국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의 '기후변화시대 강원도 가치제고 포럼' 등이 열렸다.

박람회 참가 기업들은 지자체 공공



산불예방 체험행사 14일 폐막된 2015 강원그린박람회 산림자원홍보관에서 한 관람객이 산불예방을 위한 체험 행사에 참가하고 있다. 김호석

구매 담당자들에게 기업을 홍보하고 제품을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으며 일부 기업은 지자체로부터 큰 호응을 얻기도 했다. 여기에 기후변화에 따른 새로운 트렌드 산업에 대한 아이디어도 제공받았다.

■ 문화공연과 풍성한 경품

이번 박람회에서는 처음으로 문화공연이 매일 펼쳐져 관람객들의 눈과 귀를 즐겁게 했다.

△강원도국악협회 무용단·춘천 대룡중 댄스팀·춘천 동부노인복지관 실버악단·땅울림 국악난타스밴드 730△봄내색소폰 앙상블·춘천 소양동 어울림예술단·소양초 스포츠댄스팀·포인트 어린이 무용단 등이 공연을 선보였다.

많은 경품도 인기를 끌었다.

박람회 첫날 130만원 상당의 대형 스마트TV가 경품으로 내걸리는 등 매일 TV가 한대씩 제공됐으며 참가기업

들도 자발적으로 경품을 제공하는 등 관람객들에게 또다른 기쁨을 선사했다.

■ 지자체 참여 부족 아쉬움

이번 박람회는 강원도와 춘천시가 후원했고 타 지자체도 참가기업들을 적극 지원하며 박람회의 성공을 후원했다.

하지만 일부 자치단체의 경우 관내 기업의 홍보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특히 경쟁력은 있지만 자금난으로 박람회에 참여하지 못한 업체들도 상당수 있어 이들 업체에 대한 지원부족이 아쉬운 점으로 남는다.

강원그린박람회 조직위원회 관계자는 "올해 박람회는 규모와 내실면에서 도내 유일 친환경 박람회라고 자신할 정도로 커졌다"며 "도내 기업들이 더 많이 참가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 관련 예산을 편성, 지원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안은복 rio@kado.net

—• 애 외



◇오인철 대한건설협회 도회장은 16일부터 일본 도쿄에서 열리는 '제42차 아시아·서태평양 건설협회 국제연합회 대회'에 한국대표단원으로 참가한다.

예산안 조정 소위, 도 현안 심의

춘천~속초 철도 등 주중 감액 또는 증액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가 주중 기동되면서 도 현안사업 심의 결과가 주목된다.

예산안조정 소위는 상임위 별로 취합된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비롯해 정부 원안,예결특위 종합 질의 및 부별심사 결과 등을 토대로 상임위별 예산을 감액 혹은 증액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현재 국회는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제외하고 각 상임위 별로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친 상태.

도에 따르면 상임위 예산심사 과정에서 신규 편성 또는 증액된 도 예산은 모두 1607억원 규모다.

먼저 국토교통위에서 춘천~속초 철도(50억원)와 여주~원주 철도(15억원)를 포함해 가장 많은 748억원이 증액됐다. 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517억원 △환경노동위 117억원 △산업통상자원위 113억원 △외교통일위 77

억원 △안전행정부위 34억원 등이 각각 늘었다.

그러나 최종 관문인 예산안조정 소위에서 일부 또는 전액 감액되는 경우가 적지 않아 심의 결과가 도의 내년도 국비규모를 최종 결정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교문위는 16~17일 예산결산기금 심사소위를 열고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재청 소관

예산안을 심의한다.

문체부 심의에서는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설치(102억원)와 문화올림픽 사업(100억원) 등의 신규 반영이, 동계올림픽 경기장 건설 및 기존 경기장 보수와 경기장 진입도로 건설 등에서 예산 증액이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케이블카 예산의 경우 지역발전특별회계 혹은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 추진하자는 의견이 서로 맞서 향후 논의 결과가 주목된다.

서울/진민수 jinminsu@kado.net

도민세평

조영길 ykynys@kado.net



〈가격 미리 정하고 설계품질로만 평가〉

‘확정가격 최상설계’ 시범사업 추진

국토부, 기술형입찰 유찰방지 대책

내년부터 턴키(설계·시공 일괄입찰) 공사 낙찰자 선정에 ‘확정가격 최상설계’ 방식을 적용하기 위한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박한 공사비로 기술형 입찰에서 유찰이 반복되고 있는 가운데 확정가격 최상설계 방식을 통한 기술형 입찰 시장의 정상화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1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확정가격 최상설계 입찰 활성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초안을 마련해 토지주택공사(LH), 도로공사, 수자원공사 등 주요 발주기관들과

의견 조율 작업을 벌이고 있다. 건설기술연구원 등이 가이드라인 초안을 마련했다.

확정가격 최상설계는 발주기관이 가격을 미리 정하고 업체의 설계 품질만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턴키 공사의 낙찰자 결정 방식 5가지 가운데 하나로 설계 품질을 중시하는 기술형 입찰의 성격을 가장 잘 살린 방식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발주처들이 ‘확정가격’을 정하는 데 부담을 호소하고 가격 신뢰성이 논란을 빚으면서 2010년 도입 이후 단 3건만 적용됐다. 특히 2012년 이후에는 시장에서 아예 자취를 감췄다.

김태형기자 kth@2면에 계속

1면서 계속 =

‘확정가격 최상설계’ 시범사업 추진

국토부는 올해 초부터 건설산업 불공정 행위 방지 및 담합요인 해소 차원에서 확정가격 최상설계 입찰의 활성화를 위해 가이드라인 마련 작업을 진행해왔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초안을 검토 중이며 연말까지는 가이드라인을 확정할 계획”이라며 “가이드라인이 정해지면 내년에 수 건의 시범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가이드라인 초안은 2008년 국토부가 만든 ‘일괄·대안입찰 낙찰자 결정 방식 선정 가이드라인’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가이드라인은 확정가격 최상설계 적용 공사로 △극도의 안정성이 요구되는 공사 △국내·국제적으로 시공사례가 극히 적거나 없는 경우 △국가 랜드마크 시설로서 창의성·예술성 등이 특별히 요구되는 시설물(원자력발전소, 조력발전소, 월드컵경기장 등) 등으로 제한했다. 이렇게 좁은 기준은 확정가격 최상설계 입찰의 활성화를 가로막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활성화를 위해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지만 무작정 적용 범위를 넓힐 순 없다”며 “가중치 방식에서 설계점수 가중치가 70% 이상인 고난이도 공사보다 적용기준이 더 엄격하게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확정가격 최상설계 방식의 적용 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주장한다. 최민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창의적인 구상이나 기술제안의 요소가 있고 시공 사례가 많은 공사를 대상으로 확정가격 최상설계 방식을 확대 적용해야 한다”며 “터널, 교량, 철도, 항만, 공항, 수자원개발, 공동주택 등의 공사가 적합하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내년 시범사업을 위해 가이드라인이 확정되면 전문기관의 검증을 거쳐 발주한다는 구상이다. 전문기관으로는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건설기술연구원, 용역회사, 발주청 기술심의위원회 등이 검토되고 있다. 확정가격의 신뢰성과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발주기관에서 확정가격을 최소한으로 산정할 가능성이 커이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최 연구위원은 “확정가격 최상설계 방식을 활성화하려면 확정가격의 적정성에 대한 검증이 중요하다”며 “원칙적으로 확정가격의 결정 단계에서 발주처와 전문기관, 시공사 간 3자 협의체를 구성해 확정가격을 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확정가격이 낮게 책정되면 시공업체들이 그 비용에 맞게 설계를 하면서 품질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김태형기자